

인류의 건강을 지향하다

전북대 약대, 4차 산업혁명 이끌 약사양성 추진
글로벌 리더·약료서비스 전문가 양성 트랙 운영

전북대학교 약학대학은 '인류의 건강을 지향하는 글로벌 약학허브'를 비전으로 삼고 혁신형 바이오 제약의 글로벌 리더 양성과 생명존중의 약료 서비스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위해 교육과정을 혁신형 바이오 제약의 글로벌 리더 양성 트랙과 생명존중의 약료서비스 전문가 양성 트랙 등 2가지 트랙을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산업약사와 임상약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약과학(약학연구 및 산업약학), 임상약학 및 사회약학 등 각 영역의 핵심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기본교육 과정과 심화교육 과정을 분류하여 각 영역에 특성화된 심화 실무실습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과목은 국가고시 과목 위주의 전공필수가 119학점, 산업약사, 임상약사 트랙 전공선택 과목으로 41학점이 배정돼 있다.

이를 통해 특성화 된 제약(산업) 약사 양성을 위해 신약개발 전 주기를 이해하는 통합적 교육과 제약사와 협력력을 통한 제약경영 융합 교육, 그리고 바이오 제약의 창업과 경영 역량까지 겸비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임상연구 약사 양성을 위해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원들.

임상·병동 약료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시험 전문의사와 약사로 구성된 임상약리 업무 및 교육과정에

약대 학생의 임상약리 연구 심화실습을 적용할 계획도 수립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 추진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 지원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9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1월 8일과 11~12일, 12월 7일에 걸쳐 도내 공·사립유치원에 재직중인 정교사, 기간제교사,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급의 특수교사 등 1,8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 교사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개정 누리과정의 내용 및 운영방법, 학급담임 업무 수행 등을 위해 갖춰야 할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원의 이해를 높여 개정 누리과정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합연수 8시간, 원격연수 15시간 등 총 23시간의 연수를 통해 개정된 유치원 교육과정의 이해를 높이고 놀이에 대한 이해와 실행력을 증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화하는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해 유아가 놀이의 중심이 되도록 돕고 놀이로 소통하는 유아교육을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평생학습시대 교육이 미래다'

전주교대, 학술대회 개최
류청산 교수 초청 기초강연

전주교육대학교(김우영 총장)는 오는 14일 교육문화관 김서종홀/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실에서 '미래사회, 미래학교, 미래교육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 러시아, 일본 3개국 공동으로 개최되며 1부 기초강연, 특별강연에 이어 2, 3부에서는 3개 세션으로 구분해 총 14개 주제 발표, 4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1부 기초강연은 미래학자인 류청산 교수(경인교육대학교)를 초청해 '평생학습시대 교육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2030년 4차 산업혁명, 100세 시대의 도래 등 미래사회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학교의 미래, 대학의 미래, 일자리의 미래, 청소년교육의 미래 방향과 교육의 위상에 대해 탐색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2, 3부는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한국창의과학재단 이정규단장의 '미래교육의 혁신과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박승배교수의 '전북 혁신미래학교 정책 고찰' 발표를 시작으로 총 14개의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교육정책, 교수학습방법, 교과교육 분야별 연구 동향과 최신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적 담론의 장으로 미래교육의 지향점을 모색해 본다. 또한 러시아극동대학교 Martynenko Oksana교수의 '현대 러시아 극동지역의 교사 훈련 과제' 특별강연, 일본 오사카대학 裴光雄교수, Nitsu Katsujia사의 발표는 외국의 학술 동향을 파악하는 장으로 마련된다.

(정은성 기자)



최경은 초등교육연구원장은 "미래사회, 미래 학교에서는 기술혁신의 도주적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동시에 교육의 향존적 가치와 본질적 측면이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하는 미래사회에 학교 교육과 교육의 성격에 대해 성찰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강연으로 모신 류청산 교수님은 미래사회 트렌드로 대변되는 '100세시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생방송 EBS 교육저널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 등), 생방송 교육대토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인공지능, 미래사회, 미래대학, 미래교사 등의 방송 및 강연을 통해 활발한 미래학 강연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학부모와 시민들에게도 유익한 강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 참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교육청, 내년도 신규 혁신학교 지정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0년부터 운영될 신규 혁신학교 9개교, 혁신학교 5개교 등 총 14개교를 선정·발표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혁신학교 공모를 통해 전주교대전주부설초, 익산 맑은샘유치원, 임실초, 장수 장계중, 정읍 정주초, 진안 안천(중)고, 고창 해리고·해리초·동호초 등 9곳을 신규 혁신학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창 해리고·해리초·동호초는 지역내 초·중·고교를 연계한 '혁신벨트 지정형'으로 지정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교들은 이미 공동체를 기반으로 구성된 간 학교 혁신 철학의 공유가 활발하며 교육과정 달여내기 등 혁신학교의 기반이 준비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혁신학교에는 전주덕일초, 이리동산초, 남원용성중, 장수초, 전주오송중이 지정됐다.

이중 전주덕일초와 이리동산초, 남원용성중은 도교육청과 연계해 다양한 영역의 교육적 의제를 발굴·실행하는 학교인 '광역거점형'으로 지정·운영된다. 또 장수초와 전주오송중은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지역기반 혁신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지역혁신교육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거점형'으로 지정됐다.

도교육청은 신규지정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3~15일 철학세우기 연수를 갖고, 혁신학교의 철학과 학교 문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김제검산초등학교가 6일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사업으로 '검산어울림꿈터'를 개장했다.

"우리학교에 키즈카페가 생겼어요"

김제검산초, '어울림꿈터' 개장

김제검산초등학교(교장 박연주)는 6일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사업으로 '검산어울림꿈터'를 개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장식은 정대주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 및 공간 설계사 그리고 학생·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제검산초등학교는 올해 초 전북도교육청 '청소년 놀이 공간 조성사업'에 공모에 선정된 뒤 학생회를 중심으로 놀이 공간 아동참여단을 구성했다. 아동참여단들이 총 3번의 워크숍을 통해 놀이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전문가들이 아이들의 생각을 담은 공간을 디자인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민주적 참여를 통해 설계부터 놀이 공간 위치선정, 이름 짓기, 공간구성, 규칙까지 정한 그야말로 학생들이 만들어가고 지켜지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날 개장식은 3학년의 장구공연과 라온소리 중창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흥겹게 문을 열었다.

학생 회장단의 사회로 놀이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 각 놀이공간의 해설, 아이들의 소감과 명예경찰의 인터뷰가 담긴 토크 튀는 영상으로 참석자를 사로잡았다.

리운팅에서는 공간 설계사의 설계의도를 직접 들으며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고민도 들었다.

놀이공간은 동적 공간으로 탄성줄로 꾸며진 정글숲,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미술공간, 친구와 정담을 나눌 수 있는 4개의 아지트가 있고, 정적공간에는 독서소파, 보드 게임공간, 창의력 속속 레고 공간이 마련됐다.

3학년 권연서 학생(놀이공간명 공모시상자)은 "친구들과 같이 재밌게 어울려 놀고, 즐거운 상상을 하며 함께 멋진 꿈도 꿀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놀이공간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했다.

정대주 교육장은 이날 축사에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검산어울림꿈터'가 민주적 참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연주 교장선생님은 "놀이터에서 즐겁고 해맑게 놀이하는 아이들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행복해진다"며 "학생들의 관심과 주도적 참여로 변신을 거듭하는 김제검산초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